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FIRST DAY

가제 : 첫날

저자 : Phil Harrison

출판사: Fleet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가족 소설



- * 영화 **'The Good Man'**과, 벨파스트 단편영화상 수상작 **'Even Gods'**의 감독이 처음으로 완성한 장편소설, 사랑과 욕망, 가족, 종교에 관한 강렬한 의문과 탐구
- * 한 남자의 선택과 행동, 사랑이 다음 세대까지 일으킨 커다란 파장

2012년,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가을 어느 저녁 벨파스트 동부의 작은 교회 앞에서 애나는 사진을 찍고 있었다. 스물여섯 살, 퀸스 대학교에서 베케트의 문학을 가르치는 그녀의 취미 활동이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회 건물에 초점을 맞춰 셔터를 누른 순간, 정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사무엘 오르였다.

서른 여덟, 사무엘은 이 교회의 목사이고 세 아들의 아버지였다. 열두 살이 된 큰아들 필립에게 그는 예수가 처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가 그 나이였다고 이야기하며 서로 웃음짓곤 했다. 애나의 손에 들린 카메라를 보고, 사무엘은 프레임에서 나가줘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 순간, 첫날이었다. 며칠 후, 우연히 시장 근처를 지나던 애나는 어떤 목소리에 정신을 집중한다. 누군가 설교하는 목소리, 사무엘이었다. 싸구려 물건들, 아시아에서 건너온 옷가지들, 자질구레한 물건이 널린 시장 한 곳에서 사무엘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곧 그도 자신을 바라보는 애나를 알아보고,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미소가 오갔다. 처음에는 성경과 베케트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고, 그러나 애나가 아파서 혼자 사는 집에 며칠 동안 몸져누운 날이 이어지자 처음으로 사무엘이 애나의 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먹을 것을 건네고 아버지처럼 토닥일 뿐, 다른 접촉은 없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던 간격은 이내 허물어졌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느낀 강렬한 끌림은 곧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뜨거운

사랑으로 타올랐다. 사무엘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는 신도들 앞에서 설교를 이어갔고, 애나에게 느끼는 격렬한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 사랑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신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목사로서 자신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댔다.

애나와 사무엘의 사이에서 샘이 태어나고, 먼저 태어난 세 명의 배다른 형들의 존재를 까맣게 모른 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며 성장한다. 사무엘의 외도, 그의 고민과 선택은 그의 뒤편으로만 끝나지 않고,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세대를 지나 샘과 다른 세 아이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애나와 사무엘이 처음 만난 그 날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뉴욕에서, 새로운 첫날이 시작된다.

샘은 자신을 낳은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했다.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에.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그저 흔한 또 하나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샘이 모르는 곳에서, 세 명의 다른 아이들 역시 아버지 때문에 망가진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 미쳐가고 있었다. 샘 자신에게 새겨진 상처만큼 배다른 형제의 가슴에 끓어오른 분노와 고통은 절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새겨졌고, 결국 자신을 만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 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또 다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변화가 휘몰아친다.

위트와 등장인물 각각이 매 순간 느끼는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글에서, 작가는 결혼과 사랑, 가족, 종교의 복잡한 관계에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태어난 세상에서, 삶의 진실을 찾으려 몸부림치는 처절한 과정을 낱말이 보여준다.

<저자 소개>

필 해리슨(Phil Harrison)은 영화 감독 겸 극작가로, 단편영화 ‘Even Gods’로 2011년 벨파스트 단편영화상을 수상하고 2012년 ‘아일랜드 각본상’에서 최우수 단편영화 각본상 결선에 올랐다. 2014년에는 첫 번째 장편영화 ‘The Good Man’을 발표했다.

제목 : LA FEROCIA (영어제목: FEROCITY)

가제 : 만행

저자 : Nicola Lagioia

출판사: Einaudi

발행일: 2014년 9월 2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서스펜스



*** 2015년 이탈리아 최고의 문학상 스트레가 상에 이어 올해 몬델로 상을 수상하고 이탈리아에서 15만부가 판매된 화제의 소설**

***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네덜란드, 카탈루냐, 영어로 번역 출간 예정**

서른 살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천천히, 커다란 빌라를 빠져 나왔다. 아직 소녀 티가 날 만큼 어리지도 않고,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닌 여자의 발톱에 칠해진 새빨간 매니큐어와 몸 곳곳에는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은 멍 자국이 빌라 베란다를 환하게 밝힌 조명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회색 빛으로 질린 피부 전체, 온 몸이 피투성이였다. 얼굴은 통통 부어 있고 얼굴 깊숙이 자리한 입술에도 깊은 상처가 선명하다. 한밤 중 베란다 구석 구석에 나와 있던 나방과 뱀, 쥐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는 동안, 젊은 여자는 큼직한 수영장을 지나 집으로 이어진 통행로에 세워진 자전거도 지나쳐 마당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초목이 우거진 길로 나서, 달빛 아래 계속 걸어갔다. 5분쯤 뒤에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차가운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 위였다. 우측으로 꺾인 도로를 따라 타박타박 걷는 여자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오라지오가 운전하는 트럭이 이런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저 멀리서 여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천여섯, 한때 트럭 운전수였지만 이제는 몸이 성치 않아 간간히 들어오는 배달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오라지오는 구질구질한 도시, 타란토를 오후 느지막이 떠났다. 그의 트럭에는 폴라에서 만들어진 청바지 500벌이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판매될 채비를 마치고 암전히 담겨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이 옷들을 소매상에게 넘길 도매업체의 창고.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여자를 길에서 만난 건 그에게 가져온 짐을 넘기고 집으로 돌아오던 한밤중, 새벽 두 시경이었다. 처음에는 희뿌연 물체로 보이던 것이 여자인지 소녀인지 모를 형체로 눈에 들어오고, 곧 그 여자가 완전히 벌거벗은 몸에 피투성이구나, 생각하자마자 오라지오는 핸들을 거칠게 우측으로 꺾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신 차렸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신문이든 TV 뉴스든 자신의 사고 소식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의사를 통해 간밤에 도로 위에서 본 것이 환영이 아님을 겨우 확인했을 뿐, 그 여자의 생사나 왜 그 길 위에 있었는지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클라라.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재산을 쌓은 비토리오 살베미니의 딸이었다.

1980년대, 이탈리아 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가족의 대서사시인 이 소설은 클라라의 수수께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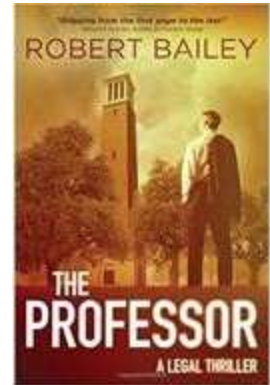
같은 죽음으로 시작된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알려졌지만, 사고인지, 사고를 위장한 자살이었는지, 살해를 당한 것인지 정확히 가능할 수 있는 단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클라라의 죽음은 돈과 명예, 화려한 삶을 좇아 추잡한 짓도 개의치 않았던 가족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초가 된다. 가족들 사이에서 후레자식이라 일컬어지며 함께 있어도 외면 받던 클라라의 배다른 오빠, 마이클은 유일하게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던 동생의 죽음에 감춰진 진실을 직접 파헤치기로 결심한다.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클라라의 죽음이 왜,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미궁에 싸여 있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며, 마이클은 도저히 그들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의 만화경처럼 복잡다난하고 화려한 시선은 저열하고 사사건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려는 아버지 비토리오와 평생 그의 그림자에 묻혀 산 희생자이자 사치스러운 삶을 버리지 못하는 어머니 안나마리아, 그리고 이 뼈격대는 가족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사는 클라라의 친형제, 조이아와 루게로, 뚜렷한 주관도 생각도 없이 늘 누군가에게 끌려 다니는 클라라의 남편 알베르토를 향한다. 권력과 소비, 외모, 즐거움 외에 다른 것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에 오른 이들은 날이 갈수록 삶이 피폐해져만 가는 노동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마을과 떨어진 곳에 비토리오가 굶어 모은 돈으로 세원 고급 빌라 안에서 살아간다. 마이클의 눈에는 감옥이나 다름 없는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위선과 입에 담기 힘든 흥포하고 잔인한 권력 다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내놓는 사람들의 이상한 계산이 마이클을 통해 한 꺼풀씩 드러난다.

클라라와 마이클의 주변 인물들과 함께 작가는 다채로운 동식물을 곳곳에 배치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나방, 개미, 거미, 파리, 온갖 곤충과 개구리, 쥐와 같은 징그러운 동물은 도덕적 가치를 잃어버린 시커먼 세상과 닮아 있고, 새, 고양이와 같은 사랑스러운 동물들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흥포한 만행과 끊임없이 맞서려는 자연의 힘을 대변한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한 가족의 삶을 강렬한 문장으로 밀도 있게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니콜라 라조이아(Nicola Lagioia)는 이탈리아의 소설가로 2001년 『Tre sistemi per sbarazzarsi di Tolstoj』로 데뷔했다. 2010년에는 소설 『Riportando tutto a casa』로 ‘비아레지오 상(Viareggio Prize)’을 수상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발탁됐다. 2015년, 『La ferocia』로 스트레가 상을 수상했다.

제목 : THE PROFESSOR
가제 : 교수님
저자 : Robert Bailey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5년 8월 18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2014년 비버리힐스 도서상 ‘올해의 법률 스릴러’ 수상작**

*** “첫 장부터 폭 빠지게 만드는 서스펜스 법률 스릴러.” - 「미드웨스트 북 리뷰」**

*** “팽팽한 긴장과 계속되는 반전으로 독자들을 붙잡아두는 영리한 스릴러.”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Rocket Boys」, 「October Sky」의 작가 호머 히کم**

40년을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일해온 토머스 맥머트리에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온다. 아주 오래 전, 한때 사랑했던 여인 루스 앤 월콕스였다. 루스의 딸과 사위, 어린 손녀딸까지 하루 아침에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비극적인 교통사고 소식은 말년에 들어 그럴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맥머트리 교수의 삶을 더 큰 소용돌이로 몰고 간다. 하지만 소중한 일 자리를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빼앗기고, 건강까지 악화된 마당에 전해진 이 사건은 그가 늦게나마, 원래 바랐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맥머트리와 드레이크의 법률 스릴러 시리즈’로 명명된 이야기의 1권인 이 소설에서 작가는 맥머트리의 인생 경로를 크게 좌우한 교수와, 교수가 된 맥머트리의 삶을 흔든 제자 드레이크의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를 복잡한 관계를 소개하고 탐욕에 젖어 눈이 멀어버린 악인들과 이들이 맞서 싸우는 법적 다툼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변호사 출신 작가답게 치밀하게 얽힌 인물들의 관계망과 실제 사건을 보는 듯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묘사는 극적 긴장감을 한층 더한다.

1969년, 법대를 나와 작은 보험회사 법률 팀에서 일할 때만 해도, 토머스 맥머트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정 변호사였다. 마침 대형 법률회사에서 연락이 와 그 꿈이 실현되려고 하던 찰나, 그의 인생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설적인 풋볼 선수 출신으로 이제는 코치로 일하고 있는 폴 브라이언트였다. 10년 전 폴이 풋볼선수로서 토머스의 재능을 알아보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망설이는 토머스의 부모님을 설득한 것도 폴이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마주 앉은 폴은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코치가 법조계에 워낙 아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토머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앨라배마 법대 학장의 이름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는 교수자리 하나가 비어서 학장이 괜찮은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토머스가 떠올랐다고 하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했다. 교수라니, 토머스는 단 한 순간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미래였다. 코치가 알려준 급여도 지금 버는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빈약했다. 계획대로 대형 로펌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와는 비교도 안 될 수입이 보장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코치와 일주일 안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돌아서는 순간, 토머스는 이미 깨달았다. 폴이 하라고 하면, 자신은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시작된 교수 생활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고, 증거수집과 분석 전문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일을 해냈다. 사건의 증거에 관한 저서도 여러 권 집필하고, 앨라배마 주 여러 사업체와 기관의 법률 팀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상담가로도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나 고집불통 괴짜 젊은이, 릭 드레이크가 그의 제자로 입학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호기로운 제자와 사사건건 부딪히기는 했지만, 그와의 갈등을 동료 교수들이 덮으로 이용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권력을 노리는 교수들은 꼴사나운 토머스 맥머트리를 학교에서 쫓아낼 절호의 기회로 삼았고, 결국 그는 종신직이 보장된 교수 자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고 귀농했다. 모함을 당했다는 배신감과 스러져가는 건강 상태는 그를 점점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때 루스가 찾아와 도움을 청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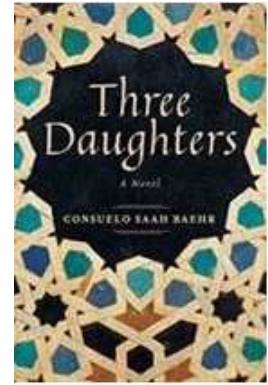
루스의 딸이 포함된 일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사고는 세 사람을 태운 자가용이 18톤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빚어진 일이었다. 루스는 자가용이 먼저 돌진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감정이 폭발한다. 그 어린 사랑스러운 손녀딸까지 죽게 만든 사고의 장본인을 잡아들여야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토머스는 루스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옛 일에 대한 책임감과 반가움을 동시에 느끼며 도와주기로 마음 먹지만, 법정 변호 경험이 부족한 자신보다 더 유능한 대타를 찾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 대상은 바로 자신을 궁지로 몰아 넣은 제자, 릭 드레이크였다. 옛날 자신의 코치가 했던 말처럼, 토머스 역시 루스를 제대로 도와 줄 사람을 떠올리자 제일 먼저 릭이 생각난 것이다.

이제 막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시시껄렁한 사건만 주무르느라 지루해하던 릭은 사이가 영 좋지 않았던 교수님으로부터 거대한 소송사건을 건네 받는다. 평생 소송이라곤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루스가 목숨 걸고 소송 걸게 만든 이상한 교통사고, 대형 트럭운송업체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이 사건은 릭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덩석 수임을 결정하고 진상 조사에 나선 릭은 일가족을 즉사시킨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지저분한 구린내가 이 사건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끝을 모르는 탐욕에서 시작된 방화와 뇌물, 서로 목을 조르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튀어오른 관계들이 그의 손 끝에서 드러나고, 마침내 첫 번째 재판 일을 앞둔 날 릭의 핵심 증인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는 섬뜩한 일까지 벌어진다. 이제 릭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한때 멘토였지만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린 교수님, 맥머트리였다. 과연 두 사람은 무모한 욕심과 피로 얼룩진 싸움판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올해 출간된 시리즈 2권 『BETWEEN BLACK AND WHITE』와 함께 긴장감 넘치는 법정 스릴러로 많은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시리즈다.

<저자 소개>

로버트 베일리(Robert Bailey)는 데이빗슨 칼리지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했다. 고향인 헌츠빌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 THREE DAUGHTERS
가제 : 세 딸들
저자 : Consuelo Saah Baehr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720 페이지
분량 : 2014년 11월 25일
장르 : 소설/ 서사, 가족



- * **2014년 출간 후 전자 책과 종이 책을 통틀어 15만 부 이상 판매, 2천 건이 넘는 독자 리뷰가 등록되고 평균 평점 4.2점을 받은 소설**
- * **“모든 페이지를 다시 읽고 싶게 만들 정도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 - 「시카고 트리뷴」**
- * **“주인공들처럼 팔레스타인 출신의 기독교 신자인 작가는 자신이 잘 아는 세계를 지배하는 오랜 믿음과 전통, 현대의 문화를 실감나게 포착하여 보여준다” - 「북리스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미리암 미슈웨와 딸 나디아, 나디아의 딸 니메까지 세 여성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대하소설이 완성됐다. 700쪽이 넘는 방대한 소설의 길이만큼 이야기는 예루살렘 인근의 자그마한 마을부터 조지타운에 자리한 고급 타운하우스까지, 서로 다른 대륙을 배경으로 1883년부터 1957년까지 3세대에 걸친 사랑과 비밀, 가족의 의미를 그린다. 세 사람의 굴곡 많은 삶은 팔레스타인과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들, 사회의 대대적인 변화와 맞물려 이야기에 생기를 더하고, 비슷하면서도 극명히 다른 세 여성의 선택이 초래하는 예기치 못한 결과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자극한다.

성스러운 땅, 팔레스타인은 1517년부터 영국이 지배권을 떠난 1917년까지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19세기에는 러시아가 방대한 토지를 사들여 숙박시설이며 병원, 교회를 건립하는 사업을 이어갔고 이 일로 러시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물밀듯이 건너왔다. 예루살렘에서 15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미슈웨 가문의 딸, 자밀라도 러시아에서 건너온 여행자와 우연히 만났다. 그가 낫선 여행지에서 심한 병을 앓고도 자밀라가 돌봐준 덕에 다시 건강해질 수 있었던 반면, 그의 병을 옮겨 받은 자밀라의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마는 비극이 벌어졌다. 자밀라와 러시아인 사이에서 애뒤틀린 감정이 생겨나고, 자밀라의 뱃속에 아이가 생긴 줄도 모른 채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남편도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돌면 집안 망신이 될 것이 뻔했기에, 자밀라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말 못하는 병어리와 서둘러 혼인을 한다. 그리하여 1892년, 미리암이 태어났다. 자밀라는 미리암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보내지 않았다. 사랑도, 칭찬도, 보살펴주려는 관심조차 없는 싸늘한 엄마에게서 상처 입은 미리암을 극진히 보살펴준 건 아빠였다. 그는 새파란 눈을 가진 딸이 누구의 아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깊은 사랑으로 감싸주었다. 아빠 덕에 잘 자란 미리암은 열여섯 살이 되자, 가문의 전통에 따

라 사촌인 나딤과 결혼을 해야만 했다.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운 미리암은 유난히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아이인데다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삶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나딤과 미리암은 마을에서 옷감 파는 가게를 꾸리며 아들 셋을 낳고 오순도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나딤이 터키 군에 징집되면서 다시 위기가 찾아온다. 큰 아들이 마차에 치어 사고를 당한 것이다.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미리암은 독일인 의사, 막스 브로더와 만나고 크게 다친 아들이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이 미리암과 막스 사이는 우정에서 사랑으로 바뀐다. 그러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된 나딤이 집에 돌아오면서 둘 사이는 자연히 멀어지고 미리암은 딸 나디아를 낳는다. 나디아는 엄마처럼 똑똑하지만, 엄마와 달리 큰 소리로 반항하고 부족이 정한 결혼이니 법도니 하는 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대차고 호기로운 아이로 자랐다. 스무 살이나 많은 친구 아버지에게 폭 빠져 결혼을 하겠다고 설쳐대며 미리암과 나딤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기도 했지만, 미리암이 끝까지 반대하고, 타이르고, 고집을 부린 덕에 결국 나디아도 집안의 법도대로, 사촌인 사미르와 결혼한다. 남편의 깊은 사랑 덕분에 차츰 안정을 찾은 것도 잠시, 나디아는 반복되는 유산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사미르가 다시 임신한 아내를 두고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이 그를 반긴다. 딸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두 사람의 딸 나딤은 순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 부모님이 택한 상대와 결혼을 한다. 미국에서 공부한 산부인과 의사, 폴이었다. 미국에서 문란한 생활을 일삼다가 제대로 된 신부를 찾으러 팔레스타인으로 잠시 돌아온 그의 본색을 미처 몰라본 나디아와 사미르는 소중한 딸을 그에게 보내고, 남편을 따라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간 나딤은 그곳에서 폴의 진짜 면모를 발견한다.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폴과의 결혼생활은 점점 견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번지고, 움츠려 살던 니메는 스스로 움아맨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다.

미리암, 나디아, 니메, 세 여성의 복잡 다난한 인생은 부모가 자식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더 큰 혼란과 비극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각자의 성격만큼이나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새로이 형성되는 자의식이 이들의 선택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해묵은 전통에 얽혀 살아가야만 하는 세 명의 여성이 각자 만들어가는 삶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 중동 지역 전반에 확산된 문화적 갈등을 흡입력 있게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콘수엘로 사 베어(Consuelo Saah Baehr)는 엘살바도르에서 프랑스인, 팔레스타인인 부모님에게 태어났다. 다섯 살 때 가족과 함께 워싱턴으로 옮겨왔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들은 오스만 제국의 옛 풍습과 가족의 역사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뉴욕 이스트 햄튼에 살면서 소설과 비소설을 다양하게 쓰고 있다.

NON- FICTION

제목 : THE MAN WHO INVENTED FIDEL

가제 : 피델 카스트로를 만들어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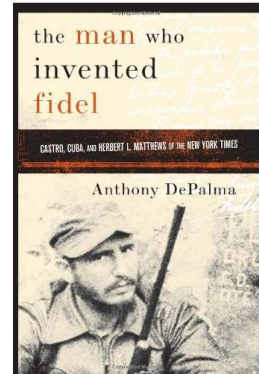
저자 : Anthony DePalma

출판사: PublicAffairs

발행일: 2006년 3월

분량 : 308 페이지

장르 : 역사/정치



- * **11월 사망한 피델 카스트로의 「뉴욕타임스」 사망 기사를 쓴 기자의 저서**
- * **“매튜 기자와 카스트로, 타임 지에 관한 저자의 고찰은 현재도 뜨거운 논란이 되는 언론보도의 문제를 명확히 드러낸다.” – 「워싱턴 포스트」**
- * **“매튜 기자와 같은 뉴욕타임스 특파원으로서, 저자는 그의 직업적 연대를 정리하고 카스트로와의 인터뷰, 쿠바 혁명에 관한 보도를 둘러싼 헛소문을 해명한다.” – 「북리스트」**

미국과 스페인의 치열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둔 후, 쿠바는 스페인 지배에서 벗어나 마침내 독립했다. 그러나 미국이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내정 간섭을 강요한 바람에, 쿠바 헌법에 그 내용이 성문화되고 말았다. 미국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지고, 쿠바 정치계는 미국에 ‘복종’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쿠바 국민들은 찌들 때로 찌든 정권의 부정부패와 쿠바 땅을 거대한 사탕수수 재배 농장으로 만들어버린 미국 대기업의 횡포에 고통스러워했다. 쿠바 혁명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시작됐다. 피델 카스트로는 단 12명의 혁명군으로 시작해 체 게바라 등의 인물과 손을 잡고 2년 만에 친미 독재자를 축출하며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50년이 넘게 쿠바의 정치 지도자로 살면서 기네스북에 최장기 지도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가 지난달 25일,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쿠바 혁명의 역사적 의의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에서 20년 넘게 특파원 겸 기자로 일해온 저자는 10년 전인 2006년에 나온 이 저서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생애를 조금 특별한 시선으로 조명했다. 같은 신문사의 선배 기자, 허버트 L. 매튜의 1957년 보도가 미국 사회와 정치권의 쿠바에 대한 인식에 끼친 커다란 영향과 이후 그 기사에 쏟아진 맹렬한 비난을 낱알이 분석한 것이다. 이 극적인 이야기는 쿠바와 미국의 오랜 갈등에 관한 특별한 통찰이자 기자의 삶, 탐사보도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탐구 과정이다.

가장 유능한 해외 특파원으로 인정 받던 매튜 기자는 1957년 쿠바의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악 지역을 직접 찾아간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뉴욕타임스」에 세기적인 ‘특종’이라 일컬어진 놀라운 뉴스를 전한다. 쿠바 정권에 의해 죽은 것으로 여겨지던 피델 카스트로가 살아 있고,

그의 체제 전복 계획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카스트로를 영웅으로 묘사한 이 기사는 쿠바를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의 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정부 안팎에서도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쿠바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길을 뻗치고 있던 미국에 적극 동조하던 쿠바의 바티스타 정권이 몰락하는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쿠바 혁명 후 사회주의 공화국을 탄생시키자 매튜 기자에게 따가운 비난이 쏟아졌다. 카스트로를 미화시킨 기사를 쓴 배신자로 낙인 찍혀 기자 생활이 끝난 것은 물론 나라를 배신한 인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저자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추적하며 진실을 파헤친다. 어떻게 어느 기자가 쓴 글이 그토록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쿠바혁명의 흐름, 냉전시대 미국의 상황, 그리고 카스트로를 둘러싼 술한 소문을 냉정하게 재조명한다. 쿠바와 미국의 관계, 저널리즘의 책임과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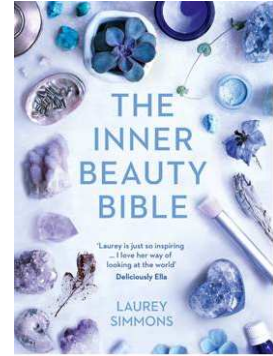
- 1장. 이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까?
- 2장. 산에서 전해진 메시지
- 3장. 진정한 용병
- 4장. 시에라의 새벽
- 5장. 난공불락
- 6장.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
- 7장. 쿠바인들의 가장 좋은 친구
- 8장. 속임수가 된 전투
- 9장. 어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
- 10장. 딱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벗어나가다
- 11장. 암흑의 시간
- 12장. 이름을 짓다
- 13장. 충실한 연대
- 14장. 다정한 목격담
- 15장. 훌륭한 싸움

맺음말

<저자 소개>

앤소니 드팔마(Anthony DePalma)는 20여 년간 뉴욕타임스의 멕시코, 캐나다 특파원 겸 기자로 일해 왔다. 뉴욕대학교 대학원 과정, 콜롬비아 대학교의 저널리즘 석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Here: A Biography of the New American Continent』 등이 있다.

제목 : THE INNER BEAUTY BIBLE
가제 : 내면의 아름다움
저자 : Laurey Simmons, Louis Weinstock
출판사: Harper Thorsons
발행일: 2017년 4월 20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건강



- * “로리 시몬스는 함께 있는 장소가 어디든, 크든 작든 지지분한 곳이든 모두 편안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낸다.” – 가수 제시 웨어
- * “루이스 웨인스톡은 마음챙김 이론과 실천방식을 모두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 **CEO Headspace**의 앤디 푸디콤
- * 전통적인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얼굴의 내적 아름다움을 찾고 가꾸는 방법을 소개한 책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을 비롯한 외모가 아닌 속에서 우러나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는다. 이 말은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해석되어 왔지만, 이제는 그저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으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외부적인 요구와 기준에 맞추느라 자연스레 ‘음소거’ 처리된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고 영혼을 탄탄하고 건강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현대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바쁜 일상에서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영국에서 연예인들 등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해온 저자는 겉을 예쁘게 꾸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표면적인 화려함보다 마음이 평온할 때 자연스레 빛을 발하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상대를 가꿔주는 일을 하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한 저자는 본격적으로 내적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수정구슬과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그 어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허둥대거나 당황하는 대신 흘러 보낼 건 흘러 보내고, 가만히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을 저자는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저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도구들과 심신의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인 물건 등이 감각적인 사진으로 페이지마다 등장하여 책장을 넘기는 재미를 더한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빛을 발하게 하려면 아무리 바쁜 생활이라도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마음과 영혼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또 빠듯한 시간 약속과 업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녀야 하는 혼란 속에서 내면을 가장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자신만의 ‘성스러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자는 크

리스탈과 아유르베다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물 등 몇 가지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여 어떤 장소든 그러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며,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긴장을 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아침과 저녁 등 시간대별 '의식'으로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고 여행이나 출장, 낯선 공간 등 평소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어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창문을 활짝 여는 것, 빛을 반기며 받아 들이는 것, 향기로운 오일 몇 방울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즐기는 것, 태양경배의 의미가 담긴 요가 동작을 하는 것, 세이지, 유목을 태우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치는 것 등 오래 전부터 전해지는 심리 안정의 비결도 현대에 걸맞게 재해석하여 제시되어 있다.

<목차>

1. 내면의 아름다움, 씨앗 뿌리기
2. 성스러운 공간과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도구
3. 의식 소개
4. 아침 의식
5. 저녁/밤 시간의 의식
6. 어디서든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7. 자연 의식
8. 놀아주기 의식
9. 축하 의식
10. 햇살

<저자 소개>

로리 시몬스(Laurey Simmons)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시 웨어, 건강한 식생활을 알리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푸드 블로거 '딜리셔슬리 엘라(Deliciously Ella)' 등의 메이크업을 돕고 있다. 온라인 부티크 'The Colourful Dot'도 운영하고 있다.

루이스 웨인스톡(Louis Weinstock)은 심리학자이자 마음챙김 명상 지도사로, 런던에서 개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목 : MODERN WOMEN 52 PIONEERS

가제 : 52명의 선구적 현대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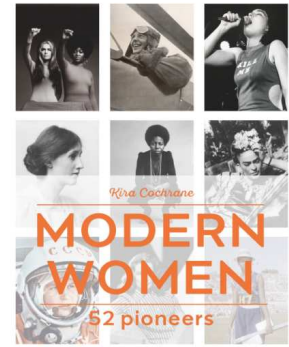
저자 : Kira Cochrane

출판사: Frances Lincoln

발행일: 2017년 3월 2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사회/여성학



- * 개인의 삶과 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52명의 여성**
- * 여성 참정권 운동, 인권 운동, 과학기술의 발전, 예술적인 자유, 평등을 위해 끝까지 싸운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삶
- * 내년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출간될 예정, **120장의 컬러 일러스트와 사진 포함**

1993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특별한 시가 낭송됐다. 큰 키에 당당한 자세가 매력적이던 시인 마야 안젤루의 시 '새 아침의 맥박(On the Pulse of Morning)'은 이후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유난히 울림이 깊었던 안젤루의 목소리는 고작 다섯 살 때 입밖에 꺼낼 수도 없는 처참한 고통을 겪고 5년간 실어증으로 고통 받은 그녀에게 하늘이 선사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위대한 문학인, 사상가로 일컬어지고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으로 꼽히기도 했던 마야 안젤루가 2014년 타계하자 장례식에 미셸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등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참석해 추모했다. 시와 소설, 강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고 전 인류가 보다 나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애써온 그녀는 대학 졸업장도 없었지만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에서 32년이나 교수로 재직하며 그 귀중한 투쟁의 가치를 인정 받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가디언」에서 '여성' 부문 글과 기사를 편집하며 전 세계 여성들의 삶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저자는 마야 안젤루처럼 현대사에 크나큰 영향과 변화를 일으킨 52명의 여성들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자선활동과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아이슬란드 출신의 가수 비요크, 「뉴욕 월드」라는 신문의 기자로 일하면서 '여성'란에 패션이나 정원 손질 요령이나 실으라는 회사의 방침을 거부하고 여성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들을 썼던 기자 벨리 블라이, 설명이 필요 없는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를 비롯해 안네 프랑크, 헬렌 켈러, 오프라 윈프리 등 세계 곳곳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린 여성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다.

여성의 권리나 사회적인 지위, 차별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낮았던 19세기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 여성들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어디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 다니는 사회운동가들에 이르기까지, 꽤 넓은 시대에 활동한 이들의 열정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확보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저자는 각 페이지마다 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관련 작품, 그림을 컬러로 제공하고, 주요 업적과 함께 어떻게 그

와 같은 이례적인 열정과 투지를 발휘하게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마주해야 했던 고난과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유엔의 양성평등 캠페인 ‘He For She’에 엠마 왓슨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등 페미니즘이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잘 맞는 책이다.

<목차>

엘리스 가이 블라쎬(Alice Guy- Blaché)

테글라 로루페(Tegla Loroupe)

델 마틴(Del Martin) 과 필리스 라이언(Phyllis Lyon)

메리 애닝(Mary Anning)

케이티 샌드위나(Katie Sandwina)

빌리 진 킹(Billie Jean King)

캐슬린 한나(Kathleen Hanna)

해리엇 터브먼(Harriet Tubman)

베스타 틸리(Vesta Tilley)

리마 보워(Leymah Gbowee)

발렌티나 테레시코바(Valentina Tereshkova)

미리암 마케바(Miriam Makeba)

소피아 둔립 싱그(Sophia Duleep Singh)

(이하 생략, 총 52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키라 코크란(Kira Cochrane)은 가디언 기고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평론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설 『The Naked Season』, 『Escape Routes for Beginners』, 논픽션 『All the Rebel Women』 등이 있으며 『Women of the Revolution』, 『Cupcakes and Kalashnikovs』의 편집을 맡았다.

제목: JANE AUSTEN AT HOME

가제: 제인 오스틴의 집

저자: Lucy Worsley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7년 5월 18일

분량: 352 페이지

장르: 역사/전기



*** 제인 오스틴 사망 20주기를 맞아 2017년 출간 예정인 새로운 관점의 전기**

*** 역사학자이자 역사적 의미가 담긴 건물과 기념물을 소개하는 큐레이터로 활동해온 전문가가 전하는 제인 오스틴의 생활 공간, 집, 소지품과 작품과의 연관성에 관한 흥미진진한 분석**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떠올리면, 포근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집과 깔끔하게 정돈된 화사한 정원이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른다.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결같이 그러한 장소가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작가의 삶에서 집은 인생 최대 고민이자 꿈이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인데다 글을 쓰는 것이 직업인 자신이 최대한 편안하게 머무르며 마음껏 집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곳, 소중한 원고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으로 벌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먼 꿈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 집, 저 집에 세 들어 살며 남의 집 아이들을 돌봐주느라 바빴으니 그 꿈은 더욱 더 멀리 달아나는 것만 같았으리라. 그러니 제인의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그토록 애타게, 진정한 ‘집’을 찾기를 갈망하는지도 모른다. 제인 오스틴 사망 20주기인 내년을 기념하며 역사학자 겸 역사적 건축물에 담긴 사연을 연구하는 데 주력해온 저자가 쓴 이 책에서는 유난히 집에 얽힌 이야기들이 가득한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실제 작가가 머물렀던 생활 공간을 토대로 새롭게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과 학교, 방학이나 휴가철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곳,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머물렀던 크고 작은 집들, 그리고 여동생, 엄마와 함께 죽을 때까지 살리라 다짐했던 집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찬찬히 살펴보고, 제인 오스틴이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들과 글을 쓰던 공간, 방 등을 돌아본다. 그리고 제인이 여러 작품에서 집을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는 소중한 공간인 동시에 감옥으로 그리게 된 연유,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집뿐만 아니라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인간의 최종 목적지로서의 집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작품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탄생한 배경을 이 특별한 여행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는 집 안, 특히 거실에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진심,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 놓을 때면 그 좁은 공간을 벗어나 야외로 나가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처음 읽을 때는 그녀의 작품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는 로맨스 소설로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안정적으로 머물 장소

를 찾기 위한 여주인공의 갈망이 엿보인다. 실제 작가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공간을 찾고 자유를 얻기 위해 분투를 벌인 시간들이 있었고, 저자가 직접 찾아간 여러 공간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제인 오스틴이 ‘무탈한 삶’을 살았다거나 외로운 노처녀였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들과 달리 결혼이라는 큰 변화의 기회가 최소 다섯 번이나 있었지만 끝내 정착해서 사는 삶을 작가 스스로 거부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전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과 그것이 작품에 담기게 된 과정, 배경을 추적한 흥미로운 역사서이자 전기이다.

<목차>

머리말: 제인 오스틴의 집

1막: 햇살 좋은 목사관의 아침

- 스티븐턴으로 / 제인에 대하여 / 사내아이들 / 약간의 교훈 / 애비 스쿨 등

2막: 낯선 땅에 잠시 머무르다

- 바스 / 바다 / 매리다운 파크 / 수잔 / ‘라임이 몹시도 그림다’ 등

3막: 진짜 집

- 초튼 코티지 / 책이 나왔어! / 오만과 편견 / 대저택 / 젊은 아가씨들의 기분전환 등

4막: 끝, 그 이후

- 재앙 / 불쌍한 것 / 끝나지 않은 일들 / 코티지 스트리트 / 마지막 집 등

맺음말: 제인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저자 소개>

루시 워슬리(Lucy Worsley)는 영국의 역사학자 겸 TV 역사 프로그램 진행자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뉴칼리지에서 고대사와 현대사를 공부하고 서식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유서 깊은 건물을 소개하는 큐레이터로 활동하다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영국 공공기관 소속 고대 기념물 조사관으로 일했고, 이후 글래스고 박물관의 연구 부장, 비영리 자선단체 ‘Historic Royal Palaces’의 수석 큐레이터, 런던대학교 역사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맡았다. BBC 4 부작 역사 다큐멘터리에 참여했으며,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A Very British Murder: The Curious Story of how Crime was Turned into Art』, 『If Walls Could Talk: An Intimate History of the Home』, 『Courtiers: the Secret History of the Georgian Court』, 『Cavalier: The Story of a 17th century Playboy』 등이 있다.

제목 : THE SLIGHTLY AWESOME TEACHER

가제 : 살짝 멋진 선생님

저자 : Dominic Salles

출판사: John Catt Educational Ltd

발행일: 2016년 8월 1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교육



* “거창한 전략이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빼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현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 「*What Every Teacher Needs to Know About Psychology*」의 저자 데이빗 디도

* “연구결과를 실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직 교사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통찰이 담겨 있다.” - 의 「*How to Teach*」 저자 필 비들

경험과 경력이 늘어날수록 전문성도 같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하고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교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다. 좋은 와인이나 치즈처럼, 숙성될수록 더 뛰어나고 우수해진다. 그러면 좋으련만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서나, 교육 실태와 교육의 효율에 관한 수많은 연구결과에서도 경력이 많다고 해서 성과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0년 넘게 교사로 살아온 저자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창의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대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 교사가 매일 여러 번 마주하는 교단에서의 상황과 지도 방식에 관한 교육학적 연구에서 오히려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교사가 대단히 멋지고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대신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라는 고통스러운 고민을 잠시 버리고 ‘학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자연스레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모든 교사가 알고 있고, 스스로 대단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멋진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준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되는지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이 그 가능성을 흐린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교사도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교수법을 개선해야 하지만, 실수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려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실수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낱알이 설명해야 하는 교육 현장의 문제도 있지만 실수를 하고서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분석 대신 일단 무마하고 보려는 이상한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이 크다. 교사의 지도와 가르침이 실제로 학생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한 피드백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또 한 번 몸에 익은 지도 방식은 어지간해서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늘 똑같은 방식만 고집하고 그 틀 안에 학생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이다. 효율적인 교수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호한 잣대로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식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습관화된 것 또한 교사의 발전을 저해한다.

저자는 그 동안 숏한 교육학적 연구와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를 현직 교사의 눈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많은 교사들이 외면해온 문제들을 꼼꼼하게 짚어가며 변화를 수용하고 교사 개개인이 실천해나갈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단순한 통계 수치로 변화의 중요성을 강요하는 대신, 그 숫자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교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석한 의미 있는 교육서다.

<목차>

머리말

머리말 2 (목비권 행사)

1장. 대부분의 교사는 경력이 10년 이상인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

2장. 몇 가지 불편한 진실

3장. 연구결과에 대하여

4장. 아이들에게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

5장. 우리가 직면한 문제: 교육계의 교수법 개혁

6장. 개별 지도

7장. 칭찬과 보상에 관한 몇 가지 의견

8장. 교사 수첩

9장. 교사의 기대

10장. 글쓰기 프로그램

(이하 생략, 총 5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도미닉 살레스(Dominic Salles)는 24년 경력의 현직 교사로, 현행 교사 훈련 방식과 억압적인 교육계의 환경이 교사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도우면서 교사 스스로 직업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제목 : 50 CAPITALISM IDEAS YOU REALLY NEED TO KNOW

가제 :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주의의 50가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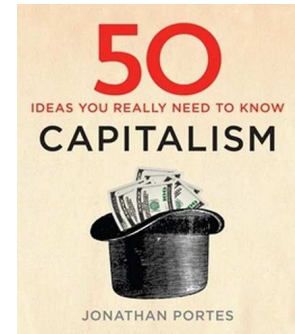
저자 : Jonathan Portes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6년 11월 3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경제



*** 자본주의의 개념, 장단점, 과거와 미래 등 자본주의의 50가지 핵심 아이디어**

*** 자본주의의 역사와 핵심 이론, 제도, 정치·사회적 영향 등 알기 쉽게 풀어 쓴 자본주의 백과사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당시만 해도 작은 지역 신문에 지나지 않았던 「월 스트리트 저널」은 당당하게 선언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자다.” 현대 경제시스템에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일관된 철학적 사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본주의가 지적, 이론적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와 사회가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전적으로 따르거나 적어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정치적 논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는 선언이었다. 실제로 여러 경제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21세기 세계 경제의 대표적인 원리이고, 사회 전체가 그 원리를 따른다고도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자본주의란 정확히 무엇일까?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으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국가나 시스템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사상을 모두 하나로 지칭하는 표현이 될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개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신념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한다. 자본주의는 곧 탐욕도 관철다는 의미인가? 불평등과 빈곤은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결과로 보아야 할까?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까, 이제는 호황이 영원히 이어지리라는 전망은 효력을 잃은 예측이 되었을까? 현재 대두되는 견해처럼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 무엇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의문에도 봉착한다. 이 책은 그저 하나의 경제 원리에 지나지 않고 사회 전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는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겨나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5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어려운 경제 용어나 지루한 설명을 배제하고 짚막하게 요약하면서도 핵심을 모두 담아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과 이론을 모두 접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를 잘 안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자본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전반의 역사, 정치학, 사회학, 문화가 총망라된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 책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가치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없애야 하는가와 같은 고찰과 앞으로 발생할 대대적인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일단 배제하고, 돈과 은행,

기업, 시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사회주의, 제국주의 등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치적 개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다. 애덤 스미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칼 막스 등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탄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상가들의 역할과 주장도 짚어보고, 자본주의가 문화에 어떤 자취를 남겼는지 분석한다.

<목차>

머리말

기본 개념

1.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2. 재산과 재산권 / 3. 자유 시장 (이하 생략, 11장까지)

자본주의 제도

12. 기업 / 13. 회사/ 14. 은행 (이하 생략, 17장까지)

금융과 금융시장

18. 주식시장 / 19. 금융시스템 / 20. 유한책임 (이하 생략, 23장까지)

정치적 경제

24. 민주주의 / 25.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 26. 사회주의 (이하 생략, 36장까지)

사회와 문화

37. 소비주의 / 38. 실업 / 39. 문화 (이하 생략, 44장까지)

자본주의의 미래

45. 경기침체 / 46. 부유함, 과다 / 47. 노동의 미래 (이하 생략, 50장까지)

<저자 소개>

조너선 포트(Jonathan Portes)는 영국 내각사무국에서 수석 경제학자로 일하며 정부에 경제 전략을 조언하다가 국립경제사회연구소 수석연구원 겸 연구소장을 맡았다.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텔레그래프」, 「타임」 지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BBC, Sky 등 여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왔다.